

환경오염 예방위해 적극 대처할터

환경문제 상담실 개설한 朴英淑 平民黨 부총재



사단장 자격으로 현장답사 등 의정활동을 보였다.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뷰

공해공장입주, 공유수면매립, 핵발전소 건설과 골프장, 호텔등 무분별한 관광개발사업등의 자연생태계 파괴행위에 대한 고발과 상담. 방사능이나 해양오염·산업폐기물·분진·소음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환경오염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녹색의 전화 환경문제상담실」이 지난달 28일부터 여의도 여성백인회관 2층에 개설됐다.

이 상담실은 듀퐁의 이산화티타늄사업 국내진출 팔당호 골재채취등 굵직한 환경문제에 대해 정부를 끈혹스럽게 만들었던 朴英淑 平民黨 부총재(58·국회보사분과위원)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하는 갖가지 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오염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진폐증환자가 1만2천여명이 넘고 온산과 울산공단의 주민들은 수은중독때문에 집단이주를 했으며, 광양만의 양식장

공해예방·피해구제 상담 관련학자등 상담요원 20명

은 여천공장의 폐수와 매립으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한 노동자들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기형아를 출산한 부인들이 생겨나는등 환경오염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통중인 사람들을 열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고자 녹색의 전화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박의원은 상담실 개설 소감을 말했다

박의원은 울돌어서만도 팔당호골재채취, 설악산자연파괴, 인천해양오염, 서울시 정수장 DDT오염등 중요한 환경현안에 대해 조

의 피해구제상담,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설치·운영에 필요한 법률상담등이다.

상담위원은 환경관련학자·환경보호운동가·박의원 보좌팀등 20명이다.

70년대초부터 「자연을되살리자」는 생명운동에가담했던 박의원은 『쓰레기문제, 식수오염, 식품문제 등 여성의 참여가 환경문제 해결에 꼭 필요하므로 앞으로 후손의 생명이 달려있는 반핵평화운동에여성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환경오염의 예방과 피해구제에 적극 대처할 뜻을 밝혔다.

<배철민 記者>